

타이어, 물류비 부담으로 가격인상

한국타이어, 7월1일부터 8-9% 올려 ... 미쉐린 9.5%에 금호타이어 검토

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받아 온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전후해 물류비 부담까지 늘어나자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.

한국타이어는 7월1일부터 타이어 가격을 8-9% 가량 인상한다고 6월20일 발표했다.

한국타이어는 “제조원가 상승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광고비 축소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내부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늘어 시장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”고 가격인상 이유를 설명했다.

미쉐린도 7월21일부터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트럭 및 버스 타이어 가격을 최대 9.5%까지 인상하기로 했다.

미쉐린은 2008년 3월 북미와 유럽 등 전세계 주요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2번째 가격 인상국이다.

금호타이어는 가격 인상폭을 놓고 최근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타이어 생산기업들은 7일간 지속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로 항구나 물류센터로 가야 할 제품들을 제때 보내지 못해 수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.

관련업계 관계자는 “타이어 생산기업들은 대형 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 영향을 크게 받는다”며 “원자재인 천연고무와 카본 가격이 전년대비 40% 올랐고 유가 상승도 지속돼 대부분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6/20>